

안규백 "원잠, 국내 건조가 합당...美조선소는 시설·인력 부재"

"건조장소는 아직 논의 안 돼"...원잠 위해 새 협정 필요하다 생각"

"SCM서 전략권 논의 상당히 진척...3단계 검증 완료, 2029년 이전도 가능"

국방위 공방...美 핵잠 승인에 국힘 "우리땅서 못 만들고 뒤통수" 평가절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국민의 힘 유영원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아직 대원칙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한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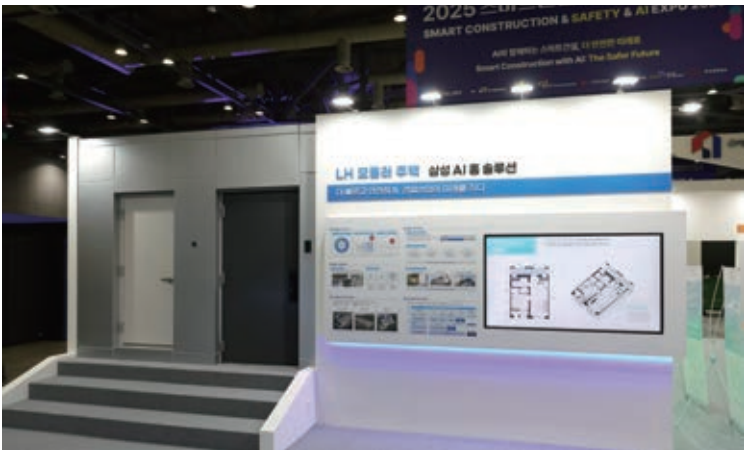
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부연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건조 시설로 록 잡여 언급했다. 하지만 필리조선소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전무한 상선 중심 조선소라 핵잠수함을 건조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에 대한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또 다른 협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 그는 명칭을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아닌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으로 정리했다고 밝힌 뒤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논의했느냐는 질의에는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9년 이전까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방예산이 더 투입되고 여러 여건이 형성되면 그전에도 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략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3단계인 FMC 검증을 마친다는 건 전략권 전환을 위한 준비

가 완료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안 장관은 SCM 공동성명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가 나온 뒤 발표될 예정이라며, "원잠과 여러 협정, 이런 문제들로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지체된 것 같은데 곧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국방부의 자체 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조사한 뒤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처벌을 목적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임무"라며 "조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관련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내란죄로 고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척결이고, 일부 내란 동조 세력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내란 프레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부하들을 핀셋으로 찍어내고 칼로 도려내듯 처벌만 하겠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맞받았다. 이채봉 기자

LH,삼성전자와 AI 가전 접목된 표준 모듈러주택 공개

11월 5일부터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 통해 미래 스마트주거공간 제시



한국도지주택공사(LH)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에 참여해 AI 가전 기술이 접목된 표준 모듈러주택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 등 관련 공공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발굴·교류 및 건설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일산 킨텍스에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OSC 등 LH의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성

과와 AI 기술 등이 접목된 미래 스마트 주거공간을 제시한다. 전시회에서 LH는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연구' 결과를 반영해 표준평면으로 제작된 모듈러주택을 최초로 공개한다. 표준평면은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와 제품화를 통한 대량생산 체계 기반의 핵심으로, 동일한 구조 모듈로 최대 30층까지 쌓아 올릴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LH는 삼성전자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모듈러공법과 AI 가전 기술이 융합된 미래 주거환경을 제시한다. 모듈러주택 설계 단계부

터 삼성전자의 'AI 홈 솔루션'을 도입하여 모듈러주택 내 냉장고, 인덕션, 일체형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AI 가전과 IoT 기기 등이 반영된 환경을 구현해 소개한다. LH는 국내 최대 규모(세종 6-3 생활권 UR1.2 블록, 412호), 국내 최고층(의왕초평 A4 블록, 22층) PC·모듈러주택 건설을 통해 고품질 OSC 기술 혁신 선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의왕초평 A4블록의 목업(Mock-Up) 주택 테스트 결과 경량 층고가 1등급, 중량 층고를 1등급 중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확인되기도 했다. 오주현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스마트건설엑스포를 통해 LH가 만들어갈 미래 스마트 주거 공간과 건설 산업의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등 기술개발뿐 아니라,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업처럼 이종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주거 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경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디지털전환

민관협력 공공 혁신서비스 소개, 인공지능 대전환 위한 정책 방향 등 논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국내 데이터 산업 육성 성과공유와 디지털 정책 지원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11월 4일 대전 서구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2025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디지털전환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3년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포럼과 지난해 열린 '국가 데이터 인프라 활성화 정책' 포럼에 이은 데이터 산업 육성 관련 세 번째 순서다. 올해에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성과 조명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철도공

사,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해 플랫폼 참여 데이터 관련 기업 25개소 등 민관의 데이터 및 AI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AI 대전환(AX)'을 위한 민·관 협업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행사 1부에서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데이터 활용 확산'을 주제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데이터 융합 댐 특화 신규서비스 구축 사례와 한국철도공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댐 연계 지역사회 철도여행 시범 프로젝트' 선도시례가 소개됐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신규서비스

스는 물을 담고 있는 댐의 친수 가치를 주변의 관광 자원과 함께 체험하도록 환경 및 생태, 문화, 교통 등 민관 데이터를 융합한 서비스다. 24개 다목적댐의 물문화관, 주변 볼거리, 대중교통 정보 등을 제공하고 AI 기술을 접목해 취향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업으로 영주댐과 섬진강댐, 밀양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댐 연계 인구 감소지역 활성화와 철도여행 프로젝트'는 일련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물과 철도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디지털 지역 상상' 과제로서 공공기관 협력 성과로 정책적 효과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물의 다양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혁신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가치 있는 기업과 데이터를 발굴하고 AX 전환의 중점 플랫폼 역할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SH 장애인조정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메달 8개 목에 걸어

금6·은1·동1...국내 최초·유일 공공기관 소속 장애인조정팀 '값진 결실'

황상하 사장, "약자와의 동행" 실현...장애인 사회참여·권익 보호 앞장설 것"



승 은메달(최범서) ▲ PR2 2X 금메달(하재현) ▲ PR3 2X 금메달(남지현, 이승호) ▲ VI혼성 2인승 금메달(최선웅) ▲ VI혼성 4인승 금메달(이재현, 최범서) 등 단거리와 개인전 참가 선수 6명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조정팀을 적극 지원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경영 기자

빔스, 제철 해산물로 즐기는 '어텀 시푸드 팝업' 한정 이벤트

서해안 자연산 새우와 꽃게로 만든 대하 소금구이, 칠리크랩으로 제철 해산물 메뉴 선보여

빔스 현대백화점 미아점 리로케이션 오픈... 접근성, 편의성 강화한 외식 공간으로 새 단장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빔스가 가을 제철 해산물을 활용한 미식 프로모션 '어텀 시푸드 팝업(AUTUMN SEAFOOD POP-UP)'을 한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서해안의 자연산 대하와 꽃게 등 제철 해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통통한 대하를 소금과 함께 구워 고소함과 감칠맛을 느

낄 수 있는 '대하 소금구이'와 속이 꽉 찬 꽃게를 빔스 특제 칠리소스로 요리한 '칠리크랩' 등 고품질의 자연산 해산물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빔스의 어텀 시푸드 팝업은 메뉴에 따라 두 차례로 나뉘어 운영된다. 5일부터 11일까지 칠리크랩을 선보이고, 12일부터는 대하 소금구이로 전환되어 16일까지 운영된다. 단, 제철 시제 특성상 한정 수량으로 운영돼 재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전하고자,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가을 최상의 맛을 준비했다"며 "가장 신선한 서해안 제철 해산물로만 한정 수량 준비한만큼 팝

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방문해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빔스는 지난 10월 28일 '빔스 현대백화점 미아점'을 새롭게 오픈했다. 인근 기존 매장 '빔스 미아점'을 백화점으로 리로케이션해, 우수한 접근성, 쾌적한 공간은 물론 데이트, 가족 외식 등 다양한 고객층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복합 외식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오픈 기념 프로모션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3일 진행된 선착순 100명 대상 '빔스인더백' 증정 이벤트는 아침부터 오후런이 이어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외에도 채굴 스테이크 3천 원 이용권, 어린이 샐러드와 3천 원 이용권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빔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농민·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함께 나서요"

주택금융공사, 동반성장주간 맞아 'HF 상생마켓' 개최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협업기관인 (사)체인지메이커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앞에서 지역 농민·친환경 제품판매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HF 상생마켓'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첩>

이번 'HF 상생마켓'에는 부산·경남지역 농민과 소상공인이 참여해 건고구마·단감 등 지역 농산물과 업사이클링·저탄소 제품 등 친환경 제품을 선보였다. 공사는 지역 주민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관 임직원 이 상품을 직거래 할 수 있게 판

매대를 설치하고, 지역 인디밴드의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특히, 행사장에서는 장바구니를 지참한 사람들에게 바로 사용 가능한 교환권을 제공해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실천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실현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김경환 사장은 "이번 상생마켓은 단순한 판매행사가 아닌 공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민·소상공인과 함께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행사 참여업체의 농산물과 친환경 제품을 구입해 부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송원 기자